

음식료

Sector Issue Brief

2026. 06. 29

주요 원재료 가격 Update: 엘니뇨

Check Point

- 엘니뇨로 인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우려
- 원당, 코코아, 커피 등 가격 상승 압박
- 가격 전가력에 따라 수익성 영향은 차별적

| Analyst 박성호 | shpark@ls-sec.co.kr

5월부터 엘니뇨(EI Nino) 구간 진입.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성 우려

미국 해양대기청(NOAA)에 따르면 5월부터 공식적으로 엘니뇨(EI Nino) 구간에 진입. 엘니뇨는 남아메리카 인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대비 +0.5°C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,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상 기후를 유발. 이에 따라 음식료 업종의 주요 원재료인 곡물의 작황 부진 및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. 특히 NOAA는 오는 11월 전후로 슈퍼 엘니뇨(평년보다 2°C 이상 높음)로 발전할 가능성은 63%로 전망. 마지막으로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2023~24년 원당 선물 가격은 54% 상승한 바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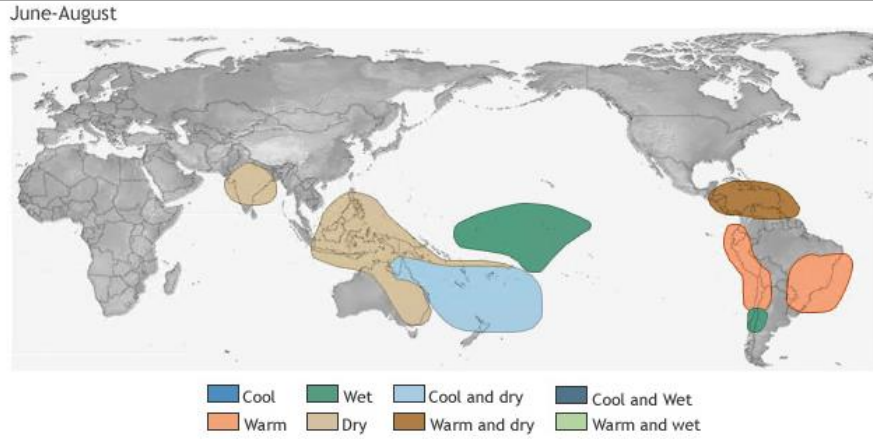
엘니뇨는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건조한 기후, 남미 지역에는 습윤한 기후를 유발함.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커피, 코코아 등 열대성 원재료의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. 반면, 브라질 남부 및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생산지에서는 강수량 증가에 따른 작황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대두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. 다만,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카테고리별로 상이할 것. Soft Commodity의 사용 비중이 높은 제과 및 음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, 팜유 사용량이 높은 라면 업체 역시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. 반면, 카테고리 내에서 기업들의 가격 전가력에 따라 수익성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

각 원재료 영향 및 이슈 점검

음식료 업종의 4대 원재료(밀, 옥수수, 대두, 원당), 그리고 최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였던 기타 원재료(코코아, 유지류, 커피) 등의 엘니뇨 영향과 최근 이슈에 대해 점검해 보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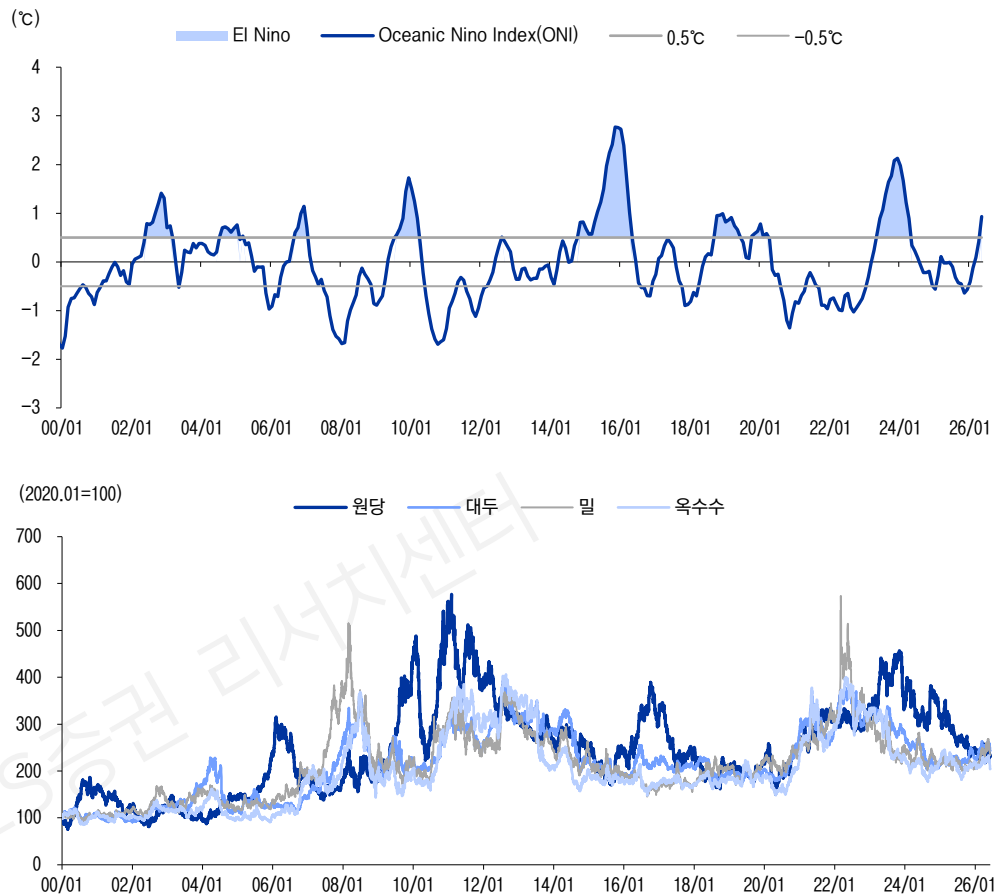
- ▶ 밀: 중립. 주요 생산지인 호주와 인도의 작황 차질 우려가 존재하나, 남미 지역의 생산 증가 가능성이 상쇄할 전망. 최근 밀 선물 가격은 2분기 기준 +14% YoY 상승. 이는 최근 미국 주요 산지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밀 생산량이 감소 우려가 확대된 영향
- ▶ 옥수수, 대두: 가격 안정화 기대. 옥수수는 주로 미국과 브라질,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며 엘니뇨 발생 시 강수량 증가에 따른 우호적인 작황 환경 조성 기대
- ▶ 원당: 가격 상승 우려. 주요 생산지인 인도와 태국에서는 강수량 감소에 따른 작황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. 또한 최근 인도의 원당 수출 제한 조치(~9/30) 역시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. 브라질의 경우 강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생산 증가에 따른 설당 생산 축소 우려. 국내 제과 및 음료 업체의 원가 부담 확대가 예상됨
- ▶ 코코아, 커피: 가격 상승 우려. 코코아의 경우 주요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의 강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작황 부진 우려 예상. 커피 역시 주요 생산지인 베트남의 강수량 감소 우려. 제과 및 음료 업체의 원가 부담 확대 요인
- ▶ 팜유, 대두유: 가격 상승 우려. 주요 생산지인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의 강수량 감소에 따른 작황 부진 예상. 이에 더해 최근 미국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유지류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. 라면 및 제과 업체의 부담 확대

그림1 엘니뇨 기후 영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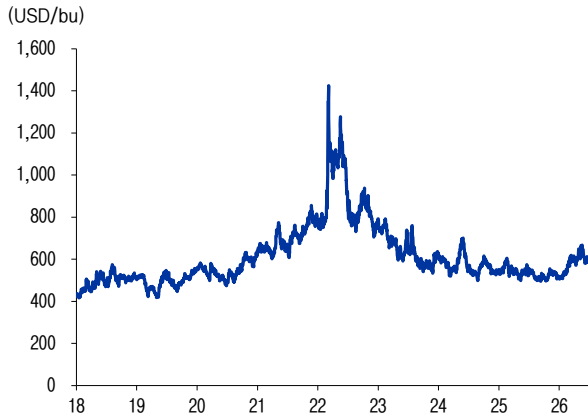
자료: NOAA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과거 엘니뇨 발생 시기



자료: NOAA,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밀 선물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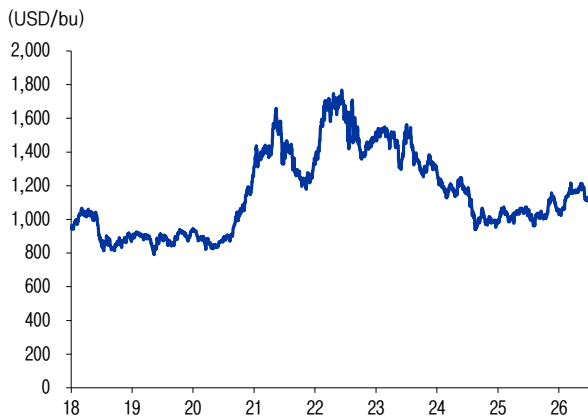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



자료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대두 선물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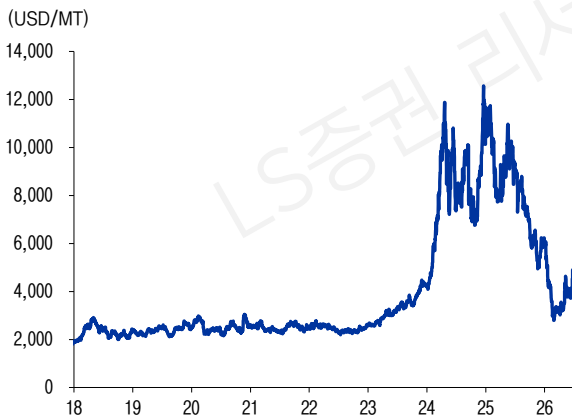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원당 선물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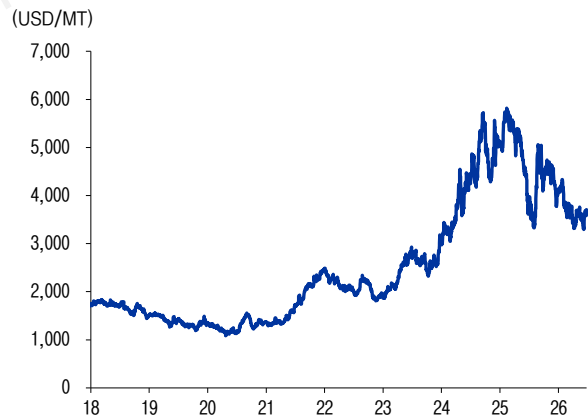
자료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코코아 선물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커피 원두 선물 가격 추이(로부스타)



자료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팜유 선물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대두유 선물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LS증권 리서치센터

표1 지역별 엘니뇨 영향

지역	기상 영향	수혜 작물	피해 작물
브라질(중남부)	강수 증가	대두, 옥수수, 원당(생육)	원당(수확), 오렌지
브라질(북부)	건조		커피
아르헨티나	강수 증가	대두, 옥수수, 밀	
인도	몬순 약화		원당, 쌀
태국	강수 감소		원당, 쌀
인도네시아	건조		팜유, 커피
말레이시아	건조		팜유
베트남	건조		커피
호주	건조		밀
서아프리카	강우 변동성 확대		코코아
미국(중부)	습윤		옥수수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성호).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	+15% 이상 기대	89.3 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±15%로 변경
		Hold (보유)	-15% ~ +15% 기대	10.7 %	
		Sell (매도)	-15% 이하 기대		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5. 4. 1 ~ 2026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